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KIA 거포 최희섭 지금 몸 상태는?…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두통 없어졌고 개막전 뛸 수 있다"

"약물치료·재활훈련으로 많이 좋아져 원인 아직 몰라 재발 여부가 큰 부담"

"개막전에 출전해 그동안의 우려를 씻고 '최희섭'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5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50여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KIA선수단과 재회한 최희섭은 본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치료와 개인 훈련을 통해 두통이 많이 호전돼 개막전 출전 전망이 밝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준재 KIA 의무트레이너도 "최희섭이 문제가 됐던 두통 증세도 호소하지 않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개막전 출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희섭과의 일문일답.

-현재 두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입국 후 한국병원과 동신대 한방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고, 가족의 응원 덕분에 두통이 많이 호전됐다. 지난 1일부터 2군과 함께 재활 훈련을 할 만큼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웨이트, 러닝, 배팅 등 개인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아직 팀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역시 메이저리거"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 같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솔직히 나의 미국 생활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100㎏이 넘는 큰 몸집에 따라 체력안배나 몸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만큼 바뀐 야구 환경과 훈련량도 두통의 원인이 된 것 같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인가.

▲두통이 생기는 것도 한국 프로야구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하다보면 스트레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부상에 이어 원인모를 두통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두통의 재발이다. 지금은 두통이 거의 없어졌지만 컨디션의 기복이 심해 고전하고 있다. 언제 또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찾아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큰 부담이다.

-팬들이 개막전에서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출전이 가능한가.

▲팀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통만 없다면 개막전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체력 안배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몸관리를 통해 경기를 소화할 자신이 있다.

-전지훈련 선수단이 귀국했는데 기분이 어떤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의욕만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열심히 훈련하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귀국하면서 팀워크를 헤치게 돼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확실하고 단계적인 치료를 통해 시즌을 준비하는 게 팀과 개인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귀국을 결심했었다.

-올 시즌의 목표나 각오가 있다면.

▲시즌 중 좋은 성적을 내 전지훈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고 있는 팀의 'V10'을 위해 앞장서고 싶다. 지난 시즌 후반기의 컨디션만 찾는다면 홈런왕 등 타이틀 석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기주·이용규 '김경문호' 승선 확정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 발표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전(7~14일·대만 타이중)에서 본선행 티켓 확보에 나설 한국야구대표팀의 엔트리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는 5일 대만 타이중에서 전지훈련 중인 야구대표팀 32명 가운데 투수 임태훈(두산), 안영명(한화), 조용훈(우리 히어로즈), 장원준(롯데), 포수 강민호(롯데), 외야수 이대형(LG), 민병헌(두산), 내야수 정근우(SK) 등 8명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경문 감독 이끄는 야구대표팀 24명은 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5명으로 짜여졌다.

투수는 손민한(롯데), 김선우(두산) 등 우완투수 4명과 류현진(한화), 김광현(SK) 등 좌완 4명, 그리고 정대현(SK), 우규민(LG) 등 언더핸드 두 명으로 꾸려졌다. 팔꿈치 부상으로 탈락한 오승환(삼성) 대신 가세한 불펜요원 임태훈은 한기주, 황두성(히어로즈) 등과 보직이 겹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주장 진갑용(삼성)과 조인성(LG) 등 베테랑 포수들이 안방을 책임지고 내야수로는 어깨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유격수 박진만(삼성)이 어렵게 합류했다.

또 외야수에는 톱타자 이종욱(두산), 이용규(KIA), 김주찬(롯데) 등 발 빠른 타자들이 포진했고 이진영(SK)도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돼 한 자리를 차지했다. 야구대표팀은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최종 엔트리 24명 ▲투수(10명) = 류현진(한화) 김선우(두산) 김광현(SK) 손민한(롯데) 정대현(SK) 한기주(KIA) 황두성 장원삼(이상 우리 히어로즈) 권혁(삼성) 우규민(LG) ▲포수(2명) = 진갑용(삼성) 조인성(LG) ▲내야수(7명) = 이대호(롯데) 고영민(두산) 박진만(삼성) 김동주(두산) 정성훈(히어로즈) 손시헌(상무)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 ▲외야수(5명) = 이종욱(두산) 이택근(히어로즈) 이진영(SK) 이용규(KIA) 김주찬(롯데)

무등경기장 야구장 새 단장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새 단장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는 5일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인조잔디 교체 및 라커룸 리모델링 공사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된 인조잔디는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최신식 필드터프로 천연잔디와 쿠숀이 비슷해 선수들의 무릎 보호 및 부상방지효과가 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원정팀 샤워장도 새로 설치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 주	3,500	송정콘도	실버	1,700
남광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로얄	2,100

상담문의 (062)351-0095

'일본산 거포' 후쿠도메 시범경기서 홈런포

일본산 '거포' 후쿠도메 고스케(32·시카고 컵스)가 미국프로야구 무대에서 첫 대포를 쏘아 올리며 맹타를 휘둘렀다.

후쿠도메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호호캄구장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에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나서 3-2로 앞선 3회말 1사 후 선발 클라우디오 바르가스로부터 1점 홈런을 뽑아냈다.

지난해 컵스와 4년간 4천800만달러에 계약하며 미국에 진출한 이후 정식 경기에서 터뜨린 첫 홈런. 후쿠도메는 4회 1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3타수 3안타, 2타점의 불꽃 화력을 뽐냈다. 앞선 4경기에서 주로 3번을 맡았던 후쿠도메는 7타수 1안타로 부진했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간판 타자로 활약했던 후쿠도메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컵스의 주전 한 자리를 예약한 상태다.

후쿠도메는 지난해 오른쪽 팔꿈치 수술 여파로 일찍 시즌을 접었지만 2006년 홈런 31개 등 타율 0.351, 104타점으로 센트럴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주니치에서 9년간 통산 성적은 타율 0.305, 홈런 192개.

한편 후쿠도메가 컵스 입단 당시 받은 몸값(4년 4천800만달러)은 '괴물' 마쓰이 히데키가 2003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면서 기록한 3년 2천100만달러와 '안타제조기' 스즈키 이치로(시애틀)의 3년 1천40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김연아 세계피겨선수권 출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08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17-23일·스웨덴 예테보리)에 나설 남녀 싱글 및 페어, 아이스댄싱 출전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5일(한국시간) ISU 홈페이지(www.isu.org)를 통해 발표된 세계선수권대회 엔트리에 따르면 한국은 여자 싱글에 김연아(18·군포 수리고)와 김나영(18·연수여고)이 출전하는 가운데 남자 싱글에 나가기로 했던 이동훈(21·삼육대)은 명단에서 제외됐다.